

## 천연 광물성 재료 쓴 정상의 고구려 예술

우리나라의 고분벽화는 주로 고구려 무덤에서 많이 발굴되었는데 압록강 유역과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지방에서 90여기가 발굴되었다. 삼국시대 이후 고려와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명맥만 유지해 왔다. 이 고분벽화는 종교적 내용에서 비롯하여 고구려인의 전투적 모습과 수호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재료는 물에 녹지 않는 천연 광물성 재료들을 많이 이용했다.



고분벽화는 주로 고구려 무덤에서 발견되는데 고구려 무덤은 중국 요령성 환인지방에 7백50여기가 남아 있고 통구지방에 1만2천3백58기가 있다. 그리고 현재 발견된 벽화고분은 약 90여기로 통구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압록강 유역과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 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안악(安岳)지방에서도 발굴된다. 고구려 벽화가 축조된 시기는 대부분 고구려가 절대 왕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를 완비하고 한국사에서 가장 광대한 국토를 영위하며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고구려는 비교적 대등한 입장에서 중국과 교류하면서 불교를 비롯한 종교와 문화를 수입한 후 자신의 문화로 흡수시켰다. 그러한 궁지가 곳곳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구려 벽화이다.

### 처음엔 종교적 내용

고분벽화의 그림은 현세적인 풍속화와 내세적인 상상화로 구분된다. 풍속화는 죽은 사람의 초상화는 물론 살아 있을 때의 생활 모습을 비롯하여 그가 살던 집이나 성곽 등 되도록 고인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것을 정성스럽게 그린 반면, 내세의 그림은 상상력의 산물로서 당시 믿음을 토대로 사신도, 신선도, 천상도 등 종교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풍속화는 대부분 4세기에서 6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고분에서 나타난다. 이후부터는 풍속화와 사신도가 공존하는 고분벽화들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사방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사신(四神)은 중국 고대 민간신앙에서 전승된 것으로 보이며 후기의 고분벽화는 사신도로 통일된다.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벽화들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려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냥꾼들이 활을 쏘는 기상이라든가 춤을 추며 돌아가는 남녀의 낙천적인 모습, 달리는 말과 도망치는 동물들, 씨름하는 남자의 표정과 옆에서 구경하는 노인의 얼굴, 동심이 어려웠는 듯한 산과 나무와 새들의 모양 등에서 그림을 그린 이의 의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즉 고구려 화가들은 고구려인들이 갖고 있는 전투적이며 씩씩한 모습과 낙천적인 삶으로 충만된 풍족한 감정을 나타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뿐

만 아니라 이승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던 온갖 악과 질병으로부터 무덤의 주인을 지켜줄 수호신까지 만들었다. 또 자연 앞에서 결코 오만하지 않았던 고구려인들은 천재지변 앞에서는 자연을 두려워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자연에서 찾았다. 더구나 자연을 주관하는 주체를 하늘로 보고 이를 벽화로 그림으로써 천상의 세계를 무덤 주인이 영위할 수 있는 궁극의 세계로 보았다. 고구려인들의 이와 같은 영혼불멸사상은 삶을 훨씬 여유롭게 만들었으며 고구려가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데 일조하였다. 고구려인들이 전투에서 강인함과 용기를 보일 수 있었던 것도 지상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사후 천상세계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 비밀은 '프레스코 기법'

고구려의 벽화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로 초기에 그려진 춤무덤(舞踊塚), 씨름무덤(角塚) 등 벽에 회를 발라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경우와 후대에 주로 사용한 강서무덤(四神

塚), 오희분 등과 같이 잘 다듬은 돌 표면에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중 회를 바른 후 그림을 그린 초기 고분벽화는 1천5백년이나 지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섬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린 데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과학실에서 쌍영총의 벽화조각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쌍영총의 벽화조각에는 주로 붉은색과 검은색 안료가 나타나는데 적색인 경우에는 수은과 황의 농도가 높게 나왔다. 이는 황화수은을 안료로 한 것이고 흑색은 먹을 사용했다. 벽화의 주색인 적갈색은 황토같은 산화철 계통의 흙을 가열하여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산화납, 크롬 계통의 산화물 같은 천연재료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벽화에 쓰인 안료들의 대부분이 물에 녹지 않는 천연 광물성 재료들이므로 이들을 벽에 고착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검은색 안료는 돌에 바른 석회에 잘 붙어 있는 반면에 붉은색 안료는 엉성하게 떠 있었다. 이것은 석회와 안료가 탄산칼슘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프레스코적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채색되었기 때문이다.

접착제 없이 천연안료로 벽화를 그리면 벽에 바른 석회가 마르면서 안료가 그 틈으로 스며드는데 이것을 프레스코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채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돌을 쌓고 그 위에 굵은 돌가루와 석회를 섞어 1차로 벽을 바른다. 그 다음 중간 굵기의 돌가루와 석회, 마지막에 고운 돌가루와 석회를 섞어 3번 가량 회벽을 입힌 후 석회가 마르기 전 그 위에 그림을 그

리는 것이다. 그러나 고분벽화의 넓은 표면을 모두 회벽이 마르기 전에 그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프레스코 기법을 주로 사용하면서 회벽이 다 마른 부분은 아교와 같은 것을 섞어 사용했다는 뜻이다. 프레스코는 젖은 상태에서 안료와 석회가 함께 굳기 때문에 안료가 떨어져 나가는 박락(剝落)현상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습기나 빗물이 무덤 안으로 스며들어도 석회수가 되어 일종의 코팅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아교와 안료를 섞어 칠한 부분은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박락현상이 일어나지만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한 곳이 많으므로 1천5백년 가까이 그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다.

### 고려·조선조맨 명맥만 ...

고구려 벽화무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안악 3호분으로 영화(永和) 13년(357)에 사망한 중국의 망명객 동수(북한은 일반적으로 미추왕릉으로도 추정함)의 무덤으로 추정하며 벽화고분 중에서는 연대가 가장 이르다. 이 벽화가 주목을 끄는 것은 당시의 생활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엌은 지붕과 기둥만 있고 앞의 벽은 없애버렸는데 그 안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여인, 부뚜막에 앉혀 있는 시루 안을 보는 여인, 그릇을 손질하는 여인들의 모습 등이 보인다. 지붕 오른쪽 끝에는 까치가 한마리 있고 부엌과 도살실 사이에 개 두 마리가 어슬렁거린다. 도살실에는 돼지나 개를 걸어놓은 커다란 쇠갈고리 네개가 걸려 있다. 많은 식물을 거느리고 있던 주인공의 풍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건립 연대를 6세기 중반으로 추측하는 통구의 무용총, 사신도로 유명한 장서대묘, 집안지역에서 발굴된 오희분 4호 벽화(천지창조 설화를 주제로 벽화를 그린 세계 유일의 것으로 추정), 목화로 그린 산수화가 발견된 평정리 고분, 동명왕릉으로 불리는 진과리 10호, 덕흥리 벽화 등도 유명하다.

삼국시대 이후 고려 벽화의 경우 천장에 별자리, 사방 벽에 수호신인 십이지신상과 사신도를 그리기도 했으나 고구려인들과 같은 영혼불멸사상을 기초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벽화 장식이 활발하지 않았다.

물론 고분벽화를 그리는 전통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에도 왕릉에 사신도를 주제로 한 묘실을 장식한 전통이 있었다. 이는 왕릉 내부 석실의 천장에는 일월성신(日月星辰), 네 벽에는 사신도를 장식하도록 규정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일반 고분에도 벽화를 그리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0년 9월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소재의 박익(朴翊, 1332~1398년) 선생의 무덤에서 발견된 사면벽화로 화강석 판석으로 내부를 쌓아올린 직사각형의 봉분 석실 서쪽면에는 고려 후기 양식인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행차하는 귀족 여인들이 붉은색, 먹색, 남색 등으로 생기있게 묘사되어 있다. 동쪽 면의 벽화는 약간 훼손되기는 했지만 남자 한사람을 포함한 네명의 인물 행렬도가 그려져 있다. 67

李 鐘 鎬

(프리미드위즈 전문위원/과학저술가)